

보도일시	2025.5.22.(목) 즉시 배포
담당처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후보 총괄특보단(단장 : 안규백)
담당자	박영화 팀장(010-4652-0520) / 김윤진 팀장(010-5672-8877) / 나호선 팀원(010-9073-1328)

"녹색에너지를 통한 기후환경 대응과 경제성장 염원"

기후환경에너지연합회 회원 1만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 기후환경에너지연합회 21일, 기자회견 열어
- 정재안 연합회장, “이재명 후보, 기후위기와 경제문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시민단체 연합체인 기후환경에너지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1일(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합회 소속 30개 단체의 회원 약 1만 명을 대표하는 관계자들과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 산하 정무특보단 단장인 서갑원 전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 연합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시대에 경제발전과 환경 보호가 상충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면서 “전 국민이 함께 기후위기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 유일한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밝혔다.
- 정재안 연합회 회장은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강력한 추진력과 탁월한 행정력으로 정책 실현 능력을 인정받아왔다”며, “우리 연합회는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 실현 의지를 지닌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을 신뢰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 후보 총괄특보단 산하 정무특보단 단장인 서갑원 전 국회의원은 지지선언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 이해도, 행정력, 추진력에서 누구보다 앞서 있는 인물”이라고 화답했다.

□ 한편, 기후환경에너지연합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목표로 활동 중인 30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합체이며, 총 회원 수는 1만 명에 달한다. 연합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후·환경 관련 정책 제언과 사회적 실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끝>

※ 별첨 : 행사사진

